
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뿐입니다		
	배포일자	2023년 3월 29일(수) 총 4매			
담당 부서 도시균형 정책과	담당자	• 도시균형사업팀장 • 담당자	강영석 ☎440-4501 김태일 ☎440-4502		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역세권 활성화로 “원도심 부활의 새바람” 이 일어난다

- 원도심 역세권 64곳 대상으로 활성화방안 수립 추진 -

-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거점사업 발굴, 시범 사업지구 실행방안 마련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혁신과 맞춤형 사업 발굴로 지역 경쟁력 제고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“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”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원도심은 인구감소, 건축물 및 산업기반의 노후화 등 물리적 쇠퇴, 일자리 감소 등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, 꾸준히 성장하는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신도시와 지역 간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.

또, 원도심 전역에 있는 경인선, 인천 1·2호선 등의 철도역사는 잠재력이 높으나,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점차 쇠퇴하고 있다. 특히, 원도심 철도역사는 대부분 개발이 완료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개발 여건 부족 등 활성화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, 특정기관 단독으로 역세권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다.

이에 따라 시는 경제자유구역, 도서지역 등을 제외한 원도심 전역의 역세권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, 인접 지역 및 기존 계획(사업)과 연계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.

용역 대상은 경인선, 인천 1·2호선, 서울 7호선, 수인선 노선의 원도심 역세권 64곳, 45.43km²이며, 6억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.

시는 용역을 통해 역세권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민간 및 공공의 참여를 유도하고 맞춤형 거점사업 발굴, 실행전략 및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. 또, 시범 사업지구(3개소)에 대한 실행방안도 마련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.

아울러, 시는 철도역사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을 검토해 활성화방안 수립 과정에서 기관(부서)별 협업체계 구축, 주민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와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계획 수립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.

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“원도심 역세권은 중요한 교통 결절점 역할과 더불어 주거, 문화, 산업, 상업 등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, 원도심의 침체와 함께 그 역할과 기능이 쇠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” 며, “역세권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- < 참고 > 1.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 개요
2.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과업범위

참고 1

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 개요

- ◇ 원도심 전역에 위치한 역세권에 대하여 인접지역 및 기존 계획(사업)과 연계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방안 마련

□ 용역개요

- (기간/용역비) '23.6.~'24.6.(12개월) / 600백만원
- (과업범위) 원도심 역세권 64곳, 45.43km²(도서지역 등 제외)
- (과업내용) 역세권 및 주변분석, 제도적 기반 마련, 거점사업 발굴 등
 - ※ '23년 중점 추진사항 ☞ 역세권 특성에 맞는 **개발방식** 및 **시범사업지구(3개소) 발굴**
- (추진사항) 행정절차 이행(일상감사) 및 용역 발주('23.2.)
 - 용역심의위원회 심의('22.10.), 역세권 자료 수집('22.12.), 용역 시행('23.6.~'24.6.)

□ 쟁점 및 추진방안

- (쟁점1) 원도심은 인구감소, 물리적 쇠퇴, 일자리 감소 등으로 침체되고 있어 신도시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
 - ☞ 역세권을 중심으로 원도심 혁신 및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 추진
- (쟁점2) 원도심 철도역사는 대부분 개발(정비)이 완료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
 - ☞ 철도역사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방식*으로 활성화 도모
 - * ①전면·부분개발(정비), ②공공·민간개발(정비), ③거점시설·콘텐츠(문화, 관광 등)
- (쟁점3) 특정기관(부서) 단독으로 역세권 활성화 추진 한계 발생
 - ☞ 용역 과정에서 기관(부서)별 협업체계 구축,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계획 수립의 완성도와 실행력 제고

□ 기대효과

- (지역사회 중심) 원도심 역세권이 중요한 교통결절점과 더불어 주거, 문화, 산업, 상업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서의 역할 수행
 - 민간 및 공공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 도모
- (균형발전)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* 마련을 통한 원도심 혁신 및 맞춤형 사업 발굴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

* 역세권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 특성을 발굴하고 인접지역 및 기존 계획과 연계

참고 2

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과업범위

<p>역세권 64곳(환승역은 1곳으로 적용)</p>	<p>경인선 11</p> <p>인천역(환), 동인천역, 도원역, 제물포역, 도화역, 주안역(환), 간석역, 동암역, 백운역, 부평역(환), 부개역</p>
	<p>인천1호선 23</p> <p>계양역, 굴현역, 박촌역, 임학역, 계산역, 경인교대역, 작전역, 갈산역, 부평구청역(환), 부평시장역, 부평역(환), 동수역, 부평삼거리역, 간석오거리역, 인천시청역(환), 예술회관역, 인천터미널역, 문학경기장역, 선학역, 신연수역, 원인재역(환), 동춘역, 동막역</p>
	<p>인천2호선 21</p> <p>검암역, 검바위역, 아시아드경기장역, 서구청역, 가정역, 가정중앙시장역, 석남역(환), 서부여성회관역, 인천가좌역, 가재울역, 주안국가산단역, 주안역(환), 시민공원역, 석바위역, 인천시청역(환), 석천사거리역, 모래내시장역, 만수역, 남동구청역, 인천대공원역, 운연역</p>
	<p>7호선 5</p> <p>석남역(환), 산곡역, 부평구청역(환), 굴포천역, 삼산체육관역</p>
	<p>수인선 11</p> <p>인천역(환), 신포역, 송의역, 인하대역, 송도역, 연수역, 원인재역(환), 남동인더스파크역, 호구포역, 인천논현역, 소래포구역</p>
	<p>○ 지하철역(대상지) ● 지하철역(비 대상지) — 경인선 — 인천1호선 — 인천2호선 — 7호선 — 수인선 — 대상지 제외 노선</p>